

간호교육위원회

간호교육 큰 연구과제 개선은

위원장 이 귀 향
<서울의대 간호학과장>

지난 1년 동안의 간호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연구 사업중 다음 몇 가지로 결산을 하고자 한다.

첫째 ; 간호교육평준화를 들 수 있다. 간호제도에에는 간호고등기술학교, 간호학교, 간호전문학교, 4년제 정규대학 과정등이 있었으나 1973년도에는 그동안 항상 숙원이었던 간호고등기술학교를 3년제 간호전문학교로 승격시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물론 문교부 실업교육과 간호전문직원 이정자 선생의 노고에 감사한다.

둘째 ; 여자 중고등학교의 간호교사 담당과목을 연구과제로 김모임, 김애실, 이정자선생의 Team work에 연구를 의뢰하여 그 계획서와 보고서가 곧 보고될 줄 안다.

셋째 ; 문교부 주최로 간호전문학교 교사 Seminar를 간호협회 교육부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넷째 ; 성인간호학(내외과 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과 간호학 교재 출판을 위한 저자를 추대한일.

다섯째 ; 앞으로 해야할 과제중에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이다. 우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

이 책정 되어 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계속 공부나 연구가 거의 없이 지나온 것이 실정이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 시도를 해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Post Basic Course가 시급한 상태이다. 계속적인 공부와 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교사와 간호원의 계속 확보문제이다. 교육받은 간호원들이 그들의 모교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하기 보다는 매도시나 해외취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지방 간호학교 교사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이 간호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발견된 것이다. 전도 유망한 졸업간호원들이 자신들의 후배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직장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 바이다. 간호원들의 적극적인 연구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요청되는 바이다. 이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요로 당국자들의 절대적인 시책과 용단은 물론 회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바이다.